

### 용산구, 5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업체별 최대 720만원 지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4일 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업체를 모집한다. 영세하고 노후화된 작업장 내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설비를 개선해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귀금속 및 장신용품(주얼리) ▲수제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환경개선 외에도 전문업체의 안전 교육과 상담(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도시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선정 시 지원금은 최대 720만 원이며, 총 비용의 10%는 자부담이다. 단,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 환경 개선사업의 기수해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품목에는 ▲위해요소 제거(소화기, 화재감지기, 덕트, 산업용 환풍기 등) ▲근로환경 개선(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바다, 벽면 도배 등) ▲작업능력 향상(작업대, 작업의자 등) 3가지 항목, 총 34개 품목이 해당한다.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의 분진, 조도, 소음, 바닥환경, 안전도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6월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업체를 통보하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7~11월 간 직접 시 공업체를 선정 후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구는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녹사평대로 150, 6층)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살아야 방문객들은 한 쪽의 그림 같은 야경을 눈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의천, 도구머리공원 두 명소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야간 감성 나들이 명소로 한층 더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아름다운 빛깔 명소로 오셔서 훌쩍 다가온 봄의 정취를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여의천·도구머리공원 벚꽃길 야간조명 밝힌다!

올봄, 서초구의 대표 산책로인 여의천과 도구머리공원이 화려한 벚꽃 야경을 선보인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아 여의천(여의1교~여의교)과 도구머리공원에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밤을 선사할 야간 경관조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외로 벗어나지 않아도 도심 한가운데서 여유롭게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의천과 도구머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봄나들이 명소다. 매년 서초구는 늦은 시간 산책에 나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벚꽃길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빛나무와 산책로를 따라 다채로운 빛의 경관조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경관조명은 해가 지는 시점부터 밤 12시까지 불을 밝힌다. 구는 벚꽃이 진 뒤에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위해 밝기를 50% 수준으로 낮추고, 가을철 단풍 나들이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다시 100%로 환하게 밝히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명 연출로 어둠이 내린 뒤에도 조명과 어우러진 벚꽃의 은은한 멋

이 살아야 방문객들은 한 쪽의 그림 같은 야경을 눈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의천, 도구머리공원 두 명소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야간 감성 나들이 명소로 한층 더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아름다운 빛깔 명소로 오셔서 훌쩍 다가온 봄의 정취를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봄빛페스타' 찾아 소통 행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주말도 반납한 채 현장 소통에 집중했다. 진 구청장은 4일(토)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강서봄빛페스타'를 찾아 행사장 안전 관리와 관람객 동선, 프로그램 구성 등 축제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 일찍부터 축제장을 찾은 진 구청장은 3시간 가까이 현장을 지켰다. 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사회자의 요청에 무대에 올라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격의 없이 어울렸다. 이날 방화근린공원은 '강서봄빛페스타'를 찾은 연인과 친구,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만개한 벚꽃과 축제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서봄빛페스타'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매일 저녁 공원 일대를 밝히는 오색 경관 조명과 만개한 벚꽃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축제장을 찾아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화창한 봄 날씨가 더해져 '강서봄빛페스타'가 더욱 빛난다"며 "달빛과 봄빛, 만개한 벚꽃이 어우러진 강서봄빛페스타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중동발 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확대 개편...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 즉각 대응·권리구제 강화  
피해 징후 사전 포착하고 피해 발생 시, 전용 상담창구·번호 즉시 개설해 집중 상담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세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 부담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4월~6월,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줄인다. 또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확

대, 소비축진은 물론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현실적 지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더욱 탄탄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관련부서에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빛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울시민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 여의도공원, 국제 관광명소이자 도시문화 허브로 대전환

제2세종문화회관(가칭)·한강과 연계한 문화복합거점 조성, 공원 보행 접근성 개선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한강과 연계해 수변·문화·생태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여의도공원 재조성'에 대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한다. 여의도공원은 1999년 1월 개원한 이후 벌써 27년이 경과돼 많은 시설이 노후화됐다. 특히 공원으로 인해 여의도 지역이 동서로 단절돼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원 보행 접근성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고유의 생태환경은 보전하면서 국제금융 중심지 내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공원상에 대한 선도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한강과 연계해 수변·문화·생태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여의도공원 재조성'에 대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한다. 여의도공원은 1999년 1월 개원한 이후 벌써 27년이 경과돼 많은 시설이 노후화됐다. 특히 공원으로 인해 여의도 지역이 동서로 단절돼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원 보행 접근성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고유의 생태환경은 보전하면서 국제금융 중심지 내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공원상에 대한 선도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의도공원이 단순 휴게·산책 중심의 공원 기능에서 벗어나 공원 내 신규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한강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활동, 이벤트 공간 등 문화복합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한다. 시는 2007년 자연성 회복과 문화기반 조성 등에 중심을 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2023년 수변·수상·도시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한강 르네상스 2.0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번 공모는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 부지 면적을 제외한 195,539㎡를 대상으로 하며, 공원 공간뿐만 아니라 단절된 여의도 셋강공원과의 연결 및 주변 지역과의 보행 네트워크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사항으로 포함됐다.

이정성 기자

### 서울시, 기후혁신 실증기업에 최대 2억·장소 지원

4월6일~5월1일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실증 참여 기업 모집...실증장소 최대 2억 지원

서울시는 4월 6일(월)~5월 1일(금)까지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모집한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실증을 돕기 위함이다.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혁신기술(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지원해왔다. 2022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와이즈앤드립(21년 설립)'은 고착 스킴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AeLF 필터(AeLF, Adhesion-enhanced Liquid Film) 기술을 실증한 후 2025년까지 10곳 이상의 상업시설, 연구소, 기업 사옥 등에 AeLF 필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LF 코팅 에어필터 기술을 네이처지에 발표하는 등 "실증지원-기업성장"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모집은 총 2개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 부문(건축, 수송, 에너지, 탄소포집,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적응분야(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이다.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실증사업에는 서울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은 서울 외 지역이어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유형은 ▲예산지원형 ▲비예산지원형 2가지이다. 예산지원형은 실증장소와 실증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비예산지원형은 실증장소만 제공된다. 예산지원형은 서울 소재 중소·중견 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40%이다. 예산지원형 중 '자유과제'는 기업이 서울시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지정과제'는 서울시가 부·자치

구·다중이용성이 높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실증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정 과제는 시민 생활 밀착형 실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3개, 수자원 관련 2개가 선정됐다. 5개 지정과제는 ▲건물자립형 HP 최적제어 알고리즘 ▲배출된 갠자갈을 활용한 투수기층 ▲전력 수요 AI 제어 에너지효율화 통합관리 시스템 ▲EV기반 도심 가상발전소 모델 ▲비가동형 하수악취 저감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가공인 우수기술인증 보유 기업 우대 가산점을 신설하였다. 또한 실증기관 발굴 및 매칭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기관 매칭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증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AI발전에 따른 에너지 사용도 증가하여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당면과제를 맞이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기후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

##### ■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주요 세제 혜택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실행하면, 토지분 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임야(종합합산)	경영계획 실행 임야(분리과세)
재산세율	2~5/1,000	0.7/1,000
대상 지역	일반 산지 등	보전산지 중 경영계획 인가 후 사업지 등
추가 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유의사항: 필지별 용도 및 사업 실행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조합과 사전 상담(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고 대행 안내

- 복잡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우리 조합은 산주님의 편의를 위해 경영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산림을 가꾸고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산주 및 조합원  
- 기대 효과: 전문적인 산림 관리, 임목 가치 상승, 세금 부담 경감

"내 산의 미래, 용인시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고 소중한 자산인 산림의 가치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산림조합, 숲가꾸기 보조사업(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안내

#####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이란 ?

- 기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 조합이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발주부터 현장 시행까지 전 과정을 조합이 책임지고 운영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지원합니다.

##### ■ 숲가꾸기, 왜 필요한가요 ?

- 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산을 관리하고 싶지만 기술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해 고민이신 산주 및 조합원님을 위해 용인시산림조합이 직접 도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동의를 제출함으로써 내 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사후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후 5년 이내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의 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간 사업 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 031-338-4143

